

‘한글마루지’ 조성 · 광화문 현판 다시걸기
시 민 공 청 회

◇ 때: 2011. 2. 10.(목) 14:00~16:00

◇ 곳: 서울기독교청년회관 대강당(종로 2가 YMCA)

사회 이대로(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인사 말씀 김중택(한글학회 회장)

격려 말씀 김형오(전 국회의장)

박진(국회의원)

김을동(국회의원)

기조 발언 이태진(국사편찬위원장)

권재일(국립국어원장)

안창원(서울기독교청년회 회장)

주제 발표 송현(한글문화원 원장)

허경무(한글서체연구회 회장)



【인사 말씀】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 5

【격려 말씀】

김형오 전 국회의장 7
박진 국회의원 11
김을동 국회의원 13

【기조 발언】

우리를 영광되게 할 ‘조선어학회사건’ 기념탑 건립/ 이태진 15
조선어학회의 귀한 뜻을 이어받자/ 권재일 18
서울시 ‘한글마루지’ 사업이 성공하려면 조선어학회사건기념탑 건립과
광화문 한글 현판은 필수다/ 안창원 21

【주제 발표】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세워야 하는 10가지 이유/ 송현 23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해야 한다/ 허경무 35

[의견 발표] 강민경(서울 종로구의회 의원) 43
구법회(한글학회 정회원) 45
신승일(한류전략연구소 소장) 47
이태길 50

[참고 자료] 51

[인사 말씀]

한글학회 100년 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자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오늘은 우리 한글학회 100년 역사상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한글마루지에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33인의 추모탑을 세우고 광화문 현관을 훈민정음으로 달아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청원을 들어 주시기 위해서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박진 의원님, 김을동 의원님, 우리나라 국학의 태두이신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님, 권재일 국립국어원장님, 진정한 시민운동의 원류인 안창원 서울기독교청년회회장님 등 이 나라 정치와 사회 문화의 최고 지도자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한 마디를 창조하느냐, 낡은 타성의 굴레에 매여 허덕이느냐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쪼록 놀라운 한글마루지 조성 사업을 구상하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문화재청장님은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시어 치욕의 역사를 씻고 부디 자랑스러운 21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주제발표를 해 주시는 한글문화원 송현 원장님, 한글서체연구회 허경무 회장님, 의견발표를 해 주시는 유은중 중국교육개혁발전위원, 강민경 종로구의원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격려 말씀]

광화문 현판 글씨, 다시 생각하자



김형오(국회의원, 18대 전반기 국회의장)

새해 들어 문화재청이 금이 간 광화문 현판 교체를 결정하고, 한글 단체들이 이참에 현판 글씨를 한글로 바꾸어 달자는 주장을 펴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나는 이미 2005년 1월,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과 이 문제를 두고 서신을 통해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았었다. 대학 동기면서 벗이었던 유 청장과 내가 현판 글씨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벌인 논쟁은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키며 언론과 인터넷을 달구었다. 그때는 광화문 복원 전에 기존 현판(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한글)부터 뜯어내고 새 현판(정조의 글씨 집자(集字) 안을 포함한 한문)으로 바꾸어 달겠다는 발상과 움직임이 의아스럽고 절박해 반기를 들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복원된 광화문에 걸린 현판 또한 나로서는 고개를 끄덕이기가 쉽지 않다. 우선 새 현판 글씨는 기존의 '광화문'이 아닌 '門化光'이다. 왜 한글이 아닌 한자 현판을 단 걸까.

나는 본질적으로 한자 현판 자체에 이의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한자 현판으로 복원해야 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직전 광화문 현판이 박 전 대통령이 쓴 한글 휘호였다는 이유로 굳이 새 현판에 한자를 썼다면 그거야말로 역사의식이 모자란 탓이다. 그 시대에 한글 현판이라니, 얼마나 신선한 파격인가. 그것만으로도 나는 직전 현판의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십 수 년 전,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이었던 옛 중앙청을 허무는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웠다. 경복궁 복원을 위한 거라면 옮기는 방법이라도 있었으련만,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부수어 버린다는 거였다. 나는 철거에 정면으로 반대하다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다. 건물은 사라져도 역사는 남는 법. 과거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한대서 일제 침략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역사를 권력으로 재단하려는 어떤 시도나 세력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때로는 숨기고 싶은 치부나 깊게 파인 상처까지도 보듬고 가는 것이 참된 역사이며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 믿기 때문이다. 역사란 영욕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또한 미래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 소피아’는 기독교 성당에서 이슬람교 사원으로, 다시 박물관으로 변신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화해와 공존의 역사를 증언해 주고 있지 않은가. 부끄러워할 역사는 있을지 몰라도 대체할 역사란 없다. 직전 현판은 그 자체가 역사다. 4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서울의 문패 역할을 해오는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이 나라 지성인들이 시대적 소명과 역사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판을 교체해야 할 당위성이 없었던 까닭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 현판을 내리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새 현판이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의 현판은 몇 백 년 세월이 깃든 유물도, 당대의 명필이나 역사적 인물이 쓴 것도 아니다. 1867년 광화문 중건 당시 공사 감독관이자 훈련대장이었던 임태영이 쓴 한자 글씨를 디지털 복원한 거라고 한다. 중건 이전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임태영이란 인물과 그의 서체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중건 당시 감독관에 불과했던 무인이 쓴 현판을 원본도 아닌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까지 복원해야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싶다. 게다가 그는 그 시대의 명필·명사 반열에도 끼지 않은 사람 아니던가.

그럴 바에는 우리 시대의 명필이나 의미 있는 인물이 쓴 한글 현판이 백 번 나올 것 같다. 훈민정음 집자가 불가능하다면 그 서체를 빌려 쓰는 것도 한 방법이리라.

또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다. 광화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좌우로 두 개의 작은 문이 보인다. 왼쪽은 용성문(用成門), 오른쪽은 협생문(協生門)이다. 이 또한 전해지는 사료가 없어 '북궐도형'(경복궁과 그 후원을 배치도 형식으로 표현한 도면)과 발굴 조사를 통해 규모를 추정 복원했다. 이 두 문의 현판 역시 한자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누가 어떻게 썼는지조차 모른다. 협생문의 현판은 중건 당시의 현판을 건탁(乾拓 : 밀랍 성분이 들어 있는 매끄러운 먹으로 문질러 모양을 떠내는 탁본 방법)해 복원했다. 용성문은 그나마 아무런 사료도 남아 있지 않아 서예가 김양동씨에게 의뢰해 임의로 쓴 한문 글씨다. 그래서 두 문의 필체가 서로 달라 어색하고 조화롭지 않아 보인다. 이거야말로 당연히 한글로 썼어야 한다.

서울 세종로의 시작 지점에 위치한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상징 조형물이다. 문패 격인 현판을 한글로 하느냐 한자로 하느냐는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경복궁은 또한 한글이 태어난 곳이다. 게다가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한글 이야기관이 자리해 있다. 세종대왕 생가 터가 있던 곳이라서 거리 이름도 세종로이다. 광화문이란 이름 자체가 세종대왕의 작명이다. 그런 만큼 이왕이면 세종의 뜻을 헤아려 서울의 관문에 '門化光'이 아닌 '광화문' 현판을 내건다면 세종께서도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지난 1월 12일, 서울시는 세종로 일대를 '한글 마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환영한다. 광화문 한글 현판은 그래서 더욱 당위성을 갖는다. 생각해 보라, 한글 문화관광 중심지로 거듭나는 세종로 입구 광화문에 한자 문패가 달린다면 이거야말로 난센스가 아니겠는가.

‘한글마루지’ 조성 · 광화문 현판 다시걸기 “시민공청회”

이제라도 늦지 않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다시 생각하고 지혜를 모으자.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바뀌어 달지 않을 아름답고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광화문’ 현판을 만들고 내 걸자.

[격려 말씀]

‘한글마루지’ 조성 광화문 현판 다시걸기



박진(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먼저 ‘한글마루지’ 조성 광화문 현판 다시걸기 시민공청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은 세계 문자 중에서 흔히들 신비로운 문자라 부르곤 합니다. 그것은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글만이 그것을 만든 사람과 반포일을 알며,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떤 문자를 찾아봐도 이런 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정확히 말해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렇듯 인류 문자 발달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의 한글을 더욱 아끼고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경복궁 앞 세종대로 일대를 한글문화관광중심지로 만드는 ‘한

‘한글마루지’ 조성 · 광화문 현판 다시걸기 “시민공청회”

‘한글마루지’ 사업계획은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글마루지’의 조성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종택 한글학회장과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님을 비롯한 한글을 사랑하시는 회원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글학회가 크게 발전하고, 공청회의 순조로운 진행과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

광화문 현판 한글로 다시걸기



김을동(국회의원)

문화재청은 석 달도 안 되어 금이 간 광화문 현판을 다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글자를 ‘한자’가 아닌 ‘한글’로 달자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많은 국민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줄곧 귀를 닫고 있던 문화재청도 각종 언론보도와 여론이 부담스러웠던지 ‘글씨’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글학회를 비롯하여 한글사랑의 마음으로 불철주야 애써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향후의 논의가 단순한 ‘글씨’와 ‘글자’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글의 가치’로 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화문은 서울의 얼굴이며, 온 국민의 문화공간입니다. 또 세계 속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궁궐 대문으로서의 역할은 다하였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는 “대한민국 국가상징거리”의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라면 꼭 한번은 방문하는 명소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주요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광화문은 이미 과거의 가치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가치가 더 큰 문화재가 된 것입니다. 광화문을 단순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는 시각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화문 현판은 반드시 자랑스러운 세계유산, 세계인이 그 우수성을 극찬하고 있는 한글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글자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또한 우리민족만의 뜻과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세계 어디에서도 그 차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문화입니다.

오늘날 한글문화를 꽃피우는 일은 시대의 사명이고, 국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민공청회가 광화문에 한글현판이 걸리는 데에 도화선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공청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한글학회의 김종택 회장님과 한말글문화협회 이대로 대표님, 그리고 여러 한글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조 발언]

우리를 영광되게 할 ‘조선어학회사건’ 기념탑 건립



이태진(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910년 8월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여 이후 수십 년 간 우리 한민족에게 고난의 역사를 안겼습니다. 남북 분단이 일제의 36년간의 강제 통치와 무관하지 않다면 그때 시작된 한민족의 수난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통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우민정책을 썼습니다. 그들도 한국인들이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은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자 전용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공문서 작성에서부터 국한문 혼용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 한글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조류에 맞추어 뜻 있는 지식인들이 국어 연구와 보급에 나서 1908년에 이미 「국어연구학회」가 창립되고 그 모임이 「배달말글 모음」(1911), 「조선어 강습원」(1913), 1914년에 「한글 배곧」(1914)이란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제는 강제 통치 초기에는 이른바 무단정책을 썼지만 ‘조선말’을 없앨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통로는 크게 차단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여럿이던 신문들을 모두 폐지하고 『경성일보』를 창간하여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로 키웠습니다. 국한문 신문으

로는 『대한매일신보』의 이름을 『매일신보』로 바꾸어 하나만을 존속시키고 이를 일제가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일제의 언론 총책이던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는 이 신문을 한국어로 글을 발표하고 싶어 하는 한국인 지식인들을 손아귀에 쥐는 수단 장치로 악용하였습니다. 이런 통제아래 국어 보급 운동도 힘을 쓰기 어려워 위의 모임도 활동이 부진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1919년의 3·1 만세시위 운동은 일제의 무단정책을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무단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한 자들은 일본 군부 세력이었습니다. 일본 육군을 창설한 주역들은 이 무렵 대부분 고령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계에도 이 무렵 이른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열풍이 불어 한국에 대한 통치도 ‘문화정치’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3·1 만세시위 운동의 폭발력이 수정을 불가피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한국 신문이 창간될 수 있었던 것은 큰 변화, 성과였습니다. 이 변화에 힘입어 학생, 지식인들은 문맹퇴치 운동에 나서 「브나르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식인들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맹 퇴치가 선결 과제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를 잘 이끌고자 국어 연구 및 보급 운동이 다시 일어나 「조선어 연구회」(1921), 「조선어학회」(1931)가 있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일본 제국주의는 다시 군부세력이 주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36년 총독이 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이전의 무단정책보다 더 심한 강압정책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황민화(皇民化) 정책이란 이름아래 한국인에 대해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신사 참배와 황국신민서사의 낭독을 강요하였습니다. 제 나라 말을 못 하게 한 것은 최악의 민족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지식인들의 한글 보급운동과 부딪히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1929년에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작하여 『큰사전』 편찬에 힘쓰고 1933년에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공표하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벌여놓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총력 동원이 불가피 하였고 이 상황에서 한국인으로 하여금 일본 천황을 위해 몸을 던지게 하고자 민족말살정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조선어학회」는 한 민족의 혼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한글 보급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일제의 광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1942년에 『큰사전』 편

찬을 위한 조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원고가 3분의 1쯤 완성된 상태에서 조판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일제는 이를 꺾고자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관계자를 모두 투옥하여 이 사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일제하의 국어학자들의 피나는 우리말 지키기 운동은 곧 민족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분들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덴마크의 스승 그룬드비히(Nikolaj Grundvig, 1783~1872)의 리더십이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19세기 초반의 덴마크는 영국과의 오랜 전쟁에 패배하여 좋은 국토를 다 빼앗기고 황무지만 남아 온 국민이 도박과 싸움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룬드비히는 목사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겨레 사랑의 3애(愛) 운동을 일으키면서 덴마크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겨레 사랑의 모토가 바로 “그 나라의 역사와 말로써만 그 민족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에 대한 민족운동은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말과 역사를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민족말살 정책으로 우리말을 없애려는 일제에 의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혼을 살아 있게 한 민족 최대의 저항운동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강제 병합, 통치의 시작과 함께 한 것이었습니다.

일제의 강제 병합 100년이 되는 작년에 서울의 중심 거리 광화문 광장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동상을 웅혼한 지태로 세운 것은 뜻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한글마루지’ 사업으로 이 일대를 의미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갈 계획도 찬사를 보낼 일입니다. 이 사업의 소식을 듣고 한글학회가 「조선어학회사건」을 기리는 기념탑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창제 그것입니다. 그리고 수성도 창제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백성의 글, 곧 국민의 글이 되게 하려던 뜻은 400여년을 지나 국민국가 수립의 시대에 실현을 볼 참이었지만 일제의 침략이 그를 가로 막았습니다. 「조선어학회사건」은 곧 이 민족적 과제 실현을 조금도 굽힐 수 없다는 숭고한 의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곧 세종대왕께서 가장 가상히 여기실 장거로서 이를 기리는 탑은 우리의 미래를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그 기념탑을 세울 것을 ‘강추’합니다.**

[기조 발언]

조선어학회의 귀한 뜻을 이어받자



권재일(국립국어원 원장)

언어는 한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에는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언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일찍이 주시경 선생께서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른다’라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그리고 우리글에 자긍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말글 발전에 힘써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세종로 일대를 한글문화의 거리, 곧 ‘한글 마루지’로 조성하려 하는 것도 다 이런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여 크게 환영하며 국어학자로서 기뻐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이러한 고귀한 사업 수행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말은 오랜 역사 속에서 곳곳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말을 적는 우리글, 한글 역시 어려운 역사 속에서 지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우리 역사를 지키려는 생각과 늘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말글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꼽자면 바로 일제강점기 시기라 하겠습

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영토를 병합하고 나서 우리 민족을 저들에 통합시키려 문화를 빼앗으려 했고, 그 문화의 알맹이라 할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우리 선조들은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말글을 지키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힘을 쏟았습니다. 문맹 퇴치 사업을 펼치고 표기법을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하고, 나아가서는 사전을 편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중심에는 애국 학자들이 활동한 조선어학회가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의 애국 학자들은 일제강점의 식민 통치 아래 나라와 민족을 되찾고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길은 오로지 우리 말글을 지키는 데 있다는 데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일을 펼치고자 ‘조선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하고 힘을 모아 일하였습니다. 말과 글을 지키는 데는 사전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이를 그냥 보기 있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는 1942년 10월 사전 편찬을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서른 세 분의 조선어학회 학자들을 함흥 형무소에 가두고 모진 고문으로 탄압하였습니다. 그 탄압 속에서 이운재, 한징 두 분 학자는 옥에서 숨을 거두고 다른 학자들은 광복과 함께 풀려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사 가운데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빛나는 일입니다. 그분들은 총칼이 아닌 말과 글로써 나라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 분들의 이러한 모진 고난이 없었던들 오늘날 우리 말글이 온전히 보전되었을까 깊이깊이 생각해 봅니다.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이렇듯 모진 고난을 겪으며 투쟁한 일은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가 그냥 그대로 그들에 묻혀 있다면 후손된 우리로서 어찌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빛나는 역사를 이어받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였다면 우리 국어학자들 나아가서 국민 모두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빛나는 역사를 이어받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널리 알리는 일, 추모 사업을 펼쳐 그 정신을 이어받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한글 마루지 조성 사업도 이러한 사업의 하나일 것입니다. 세종로 일대는 한글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한글을 창제하신 세

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로이며,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세종이야기, 세종문화회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말글을 지킨 조선어학회 선열을 기리는 추모탑을 세우는 것은 매우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추모탑은 한글 마루지를 찾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말글의 정신을 일깨우고 순국선열들의 높고 귀한 뜻을 길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 공간에는 그 공간에 딱맞는 역사가 담겨야 합니다. 장차 우리나라 중심 문화 공간이 될 세종로의 한글 마루지에 우리 말글의 역사의 상징인 조선어학회 추모탑이 세워진다면 우리 말글을 위해 가장 높고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조선어학회 추모탑 건립을 위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기조 발언]

서울시 ‘한글마루지’ 사업이 성공하려면 조선어학회사건기념탑 건립과 광화문 한글 현판은 필수다



안창원(서울기독교청년회 회장)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청년회는 개화기부터 한글과 한글학회와 인연이 깊습니다. 한글이 기독교 발전에 이바지 했고, 기독교가 한글발전을 도왔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청년회를 처음 만든 험버트 박사가 근대 한글 발전에 가장 공적이 많은 주시경 선생을 배재학당에서 가르치고 한글발전에 서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조선어학회(한글학회)를 만들고 일제 때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빛내려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한제국 때 최초 현대 교육기관인 육영공원 교사로 온 험버트박사는 기독교청년회 창립자나 다름없습니다. 그 험버트박사는 한글로 교과서를 처음 만들고 주시경 선생과 함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독교회관을 건립하고 오랫동안 기독교청년회를 이끈 오리 전택부 전 기독교청년회 회장은 한글 운동가로서 한글날 국경일 제정에 앞장서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도 남달리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이 더욱 빛나길 바라고 있으며 한글학회가 하는 일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와 학자와 국민이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학회 분들의 공적과 고마움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 정신을 이어가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서울시가 한글을 더욱 빛내고 자랑하려고 광화문 앞 세종로 일대를 한글문화관광중심지로 조성하는 ‘한글 마루지’ 사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한글 학회가 그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업에 ‘조선어학회사건 추모탑 건립’을 서울시에 건의한 일은 매우 잘 한 일이고,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달자는 주장 또한 이 사업이 성공하고 이 나라와 겨레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로 보고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한글단체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헐버트 박사가 이 땅에 기독교청년회를 만든 것은 기독교 사상과 청년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와 겨레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그 뜻을 이루려면 한글로 청년 교육을 하고 기독교를 알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기독교와 한글이 서로 살 수 있는 길이었으며 올바른 생각이었고 뜻이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국민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었고, 오늘날 나라 발전도 이렇게 빨리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글과 한글운동가들이 한없이 고맙습니다.

이번 서울시 사업에 세종대왕께서 태어난 곳을 찾고, 주시경 선생이 살던 집 근처 공원에 동상을 만드는 ‘한글마루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더 알차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시경 선생 동상과 함께 헐버트 박사 동상을 건립하면 개화기 한자로 어두운 시절에 두 분이 함께 한글과 겨레 발전에 이바지한 역사와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보아 건의합니다. 그리고 일제 때 애쓴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가기 위해 조선어학회사건 기념탑을 꼭 세우고 한글이 태어난 역사와 정신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뜻있는 행사가 우리 서울기독교청년회 대강당에서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글을 빛내려고 애쓰는 한글학회와 한글단체 여러분께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주제 발표]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세워야 하는 10가지 이유

-한글마루지에 추모탑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다-



송현(시인, 한글문화원 원장)

1. 세종로 일대 한글마루지 조성은 역사에 길이 남을 대역사

한글마루지 조성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대 역사이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일대 통의·통인·내수·세종로동 등 47만㎡에 ‘한글 마루지(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월 12일(수) 밝혔다.

“세종로 일대 47만평방미터 한글 마루지로 조성 서울시가 정치·문화·역사 중심가로운 세종대로 일대를 ‘한글 문화관광 중심지’로 조성, 세계적 문화유산이자 우리고유 문자인 한글을 문화상품화 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선다. 마루지는 랜드마크를 의미하는 우리말 조어(국립국어원 선정, '09년)로 세종대로 일대는 세종대왕 생가터, 주시경 집터, 한글학회 등 한글 관련 기존 시설들이 풍부해 한글을 주제로 하는 문화관광 중심지 조성에 가장 적

합한 곳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민간협조를 받아 이 일대 지역 내 간판, 표지판 등 모든 문자들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민간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한글 마루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지가 경복궁서측과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에 한글 마루지 사업의 내용을 반영해 제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글이 음운표기의 과학성, 디자인적 가치 등이 세계에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세계에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글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 한글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세계 학자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화 등 통합적 노력이 부족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어 보급에 주력해 성과를 얻고 있으나, 한글 자체에 대한 문화상품 개발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조각, 픽토그램, 디자인,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예술 및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화 체계화 되지 못한 채 영세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글 마루지’에 공원·시범가로 등 한글 관련 시설 조성 한글 사랑방 운영·생가 재현 등 한글 문화상품화 한글교실·붓글씨 체험 등 한글체험관광 활성화 한글 문화콘텐츠 지원 한글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글 마루지를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한글의 상징으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옆에 위치한 세종로 공원에 8,868㎡ 규모 ‘한글 11,172마당’을 올 상반기 중 조성한다. ‘한글 11,172마당’이란 한글자모 24자로 만들 수 있는 총 11,172 글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로, 세로 10cmx10cm 돌포장석에 11,172명의 국민이 한자씩 써서 공원 바닥에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글11,172마당’ 조성에 참여할 시민을 오는 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글과 별도로 각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국가의 돌에 각국의 고유문자로 새긴 인류의 보편적 이상을 담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시할 예정이다.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은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한글학회~주시경집터~사직로'를 잇는 연장 900m엔 주시경길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국어학자인 주시경은 일제 강점기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글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끊임없이 진행해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시범가로에는 픽토그램을 활용한 도로 표지판, 안내표지판과 한글 벤치, 한글관련 야외 전시와 각종 퍼포먼스 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추진시 인근 주택, 상가 등 건물 전면공간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 주변 상인,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로구 내수동 75번지 일대에는 주시경 선생을 기리는 기념공원도 조성한다. 주시경 집터는 현재 주상복합건물(용비어천家)내에 주시경집터를 알리는 기념조형물만 설치되어 있다. 이에 주시경집터의 복원은 현실적으로 곤란해인근 공원내에 주시경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시경기념공원 조성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1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한글 마루지' 대상지에서 최소 1박 이상 체류하면서 한글을 배우고 체험하며,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한글 사랑방(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해 전통한옥 육성지역인 서촌지역의 적정시설 대상지를 선정, 매입해 '12년 마당과 뒤뜰이 있는 한옥건물로 리모델링해 운영할 계획이다. 숙박방은 온돌·창호 등 한옥구조를 유지하면서 독립공간은 보장하되, 세면, 식사 등은 한국전통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은 약10인 규모의 숙박방, 공용식당(마루), 정보마당(pc,독서실), 사랑채(휴식, 대화), 관리실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태어난 생가 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대왕 생가터를 알려주는 것은 통인동 자하문로 보도상에 설치된 표석뿐이다. '10. 1월 서울시에서 연구한 '세종시대 도성 공간구조에 관한 학술연구'에 따르면 세종대왕 생가는 준수방 잠저(세종실록)로 통인동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엔 현재 저층의 양옥과 한옥이 밀집되어 있다. 조선시대 대군의 가사(家舍) 및 가대(家垜)의 규모로 볼 때 약 3,861㎡로 추정되는 세종대왕 생가 재현을 위해 시는, 재현 위치, 규모, 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해 생가재현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약 1시간 교육과정을 통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한글독음(讀音) 프로그램을 올 7월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독음프로그램은 ?국제선 항공기 기내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외국에 설치된 한국어 보급기관인 세종학당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광화문광장 세종이야기 등 적정장소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일 한글 교실을 운영해 한글의 우수성을 외국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독음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글 교육으로 다문화 가정의 한글에 대한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광화문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훈써주기, 한글이름써주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한글 휘호로 써주고, 희망자에 한해 즉석에서 표구 제작해 실비로 판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6월 공모전과 전시회를 개최해 한글 자모를 활용한 벤치, 도로시설, 표지판 등 공공디자인과 픽토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펜시, 문구, 악세서리, 인테리어 등의 상품을 개발,홍보해 한글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한글 자모 형태의 조각과 한글 서예 작품 등을 전시해 한글과 관련한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문화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글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일대 공간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종대로 일대 한글마루지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글 마루지 자문단’은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글, 한글한류, 외국인, 디자인, 한글상품, 역사문화 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고유문자를 소재로 마루지를 조성한 도시는 서울이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이라며 “세종대로 일대를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가 흐르는 곳으로 조성해 한글 대표 문화상품으로 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1. 1. 12)

2. 조선어학회 사건과 순국선열추모탑

1) 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이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민족말살 정책에 따라 한글연구를 한 학자들을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죄목으로 탄압·투옥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이 침략전쟁에 깊이 빠져들고 있던 1940년대에 조선 식민 통치를 강화하면서 민족을 말살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인의 정신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황국신민화정책**을 추진하였고, 우리의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인이 한국말을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학교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로 강의하고 일본어를 기본과목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도 일본어만을 쓰게 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을 일본인화 하려는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한국의 지식인층의 저항을 탄압하지 않으면 그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주시경**(周時經)을 중심으로 한글연구가 확대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 민족의 혼을 지켜야한다는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면서, 1921년 12월에는 **조선어학회**가 창립되어 국어와 한글연구를 꾸준히 해나갔다. 1929년 10월에는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었고, 사전편찬을 위한 연구로 **〈한글맞춤법통일안〉**·**〈표준어사정〉**·**〈외래어표기〉** 등 국어의 제반 규칙을 연구 정리하였다.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정신이 강한 사람을 **사상범**으로 분류하고, 그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拘禁令)'을 공포하여 민족운동이나 민족계몽운동을 하는 한국인을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194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함흥영생고등여학교(咸興永生高等女學校) 학생 박영옥(朴英玉)이 기차 안에서 한국말을 하다가 **조선인** 경찰관 **야스다**(창씨개명한 일본 이름, 조선이름 安正默)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서울의 정태진(丁泰鎭)으로부터 민족정신을 지키도록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정태진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서 조선어사전을 편찬을 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당시 조선어사전은 대동출판사에서 인쇄를 하고 있었다(1942. 4). 나아가 정태진의 배후를 강력 조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선어학회가 민족운동을 하는 단체라는 억지 자백을 받아냈다. 그리하여 한글교육 폐지와 조선의 지식인을 모두 검거해야한다는 단서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어학회 관련 학자들이 1942년 10월 1일부터 1943년 4월 1일까지 모두 33명이 검거되었고, 그리고 증인으로 붙잡혀간 사람도 48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검거과정과 취조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일본 검사에 의하여 처벌 수준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이극로**(李克魯)·**이윤재**(李允宰)·**최현배**(崔鉉培)·**이희승**(李熙昇)·**정인승**(鄭寅承)·**정태진**·**김양수**(金良洙)·**김도연**(金度演)·**이우식**(李祐植)·**이중화**(李重華)·**김법린**(金法麟)·**이인**(李仁)·**한징**(韓澄)·**정열모**(鄭烈模)·**장지영**(張志중화暎)·**장현식**(張鉉植) 등 16명은 기소 처분되었고, 12명은 **기소유예**되었다. 기소 처분된 16명은 <치안유지법>을 어긴 내란죄로 몰아 예심재판에 회부됨과 동시에 함흥형무소 미결감에 수감되어 옥살이가 시작되었다(1943. 7. 1). 그리고 기소 유예된 사람과 나머지 등 17명은 석방되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중일 때, 이윤재가 1943년 12월 8일에, 한징이 이듬해 2월22일에 옥중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정열모와 장지영은 공소 소멸로 석방되었다. 그리하여 공판에 넘어간 사람은 12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함흥지방법재판소에서 9회에 걸쳐 진행되어 1945년 1월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극로 징역 6년, 최현배 징역 4년, 이희승 징역 2년 6개월, 정인승·정태진 징역 2년, 김법린·이중화·이우식·김양수·김도연·이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장현식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유죄가 선고된 자에게는 “고유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은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의 형태이다.”라는 결정문이 내려졌다.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된 7명은 석방되었고, 5명만이 긴 수감생활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극로·최현배·이희승·정인승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8월 13일자로 기각되었다. 정태진은 상고보다는 복역을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복역을 마치고 1945년 7월 1일에 출옥하였다(미결수의 수감기간도 징역기간에 합산됨). 나머지 4명은 바로 광복을 맞아 8월17일에 출소하였다. (네이버백과사전/ 류 재택)

2)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이란?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은 한글학회 김 종택 회장이 지난 2010년 11월 25일 오세훈 서울 시장께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 건립의 일”이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최초로 공론화되었으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순국하거나 옥고를 치른 순국선열 33인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탑을 말한다.

조선어학회 순국 선열 33인은 애산 이 인, 범상 김 범린, 민세 안 재홍, 성산 김 도연, 열운 장 지연, 한메 이 윤제, 야자 이 만규, 창남 윤 병호, 고루 이 극로, 연아 서 승효, 해관 신 윤극, 외솔 최 현배도, 약영 김 양수, 건재 정 인승, 한피 안 호상, 석인 정 태진, 월파 서 민호, 노산 이 은상, 동운 이 중화, 효창 한 징, 애류 권 덕규, 추정 이 강래, 남저 이 우식, 가람 이 병기, 한결 김 윤경, 백수 정 열모, 일석 이 희승도, 일농 장 현식, 눈솔 정 인섭, 무돌 김 선기, 또나 이 석린, 권 승욱 등이다.

3.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세워야하는 10가지 이유

1) 한글 마루지에는 교육적이고 감동적 이야기(주제)를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 초입에 “노인과 여자”라는 그림이 있다. 푸른 수의를 입은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빠는 장면을 그린 춘화 같은 그림이다. 이 그림의 숨은 뜻을 모르는 이들은 노인과 젊은 여자의 부자유스러운 애정 행각을 그린 춘화가 어떻게 국립미술관에 걸려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푸른 수의를 입은 노인은 젊은 여자의 아버지다. 커다란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여자는 노인의 딸이다. 누가 보아도 이 그림은 싸구려 춘화로 보인다. 그런데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면 춘화로 여긴 사람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고 도리어 숙연하게 한다.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이다. 식민지 독재정권은 노인을 체포해 감옥에 넣고는 가장 잔인한 “음식물 투입 금지”란 형벌을 내렸다. 여러 날 째 물 한모금도 먹지 못한 노인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노인의 가족들은 노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이 비통한 소식을 듣는다. 노인의 딸은 해산한지 며칠 지나서 이 소식을 듣고, 무거운 몸으로 감옥으로 달려갔다.

노인은 눈이 다 풀어져 허연 눈만 껌벅이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다. 양손과 양발은 뒤로 묶여진 채로 감방 바닥에 내동이쳐 있었다. 빼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눈에는 위정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핏발이 섰다. 꿈에 그리던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딸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를 보고 마침내 딸은 가슴을 풀고 텅텅 불은 자신의 젖을 아버지의 입에 물렸다. 딸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허연 눈만 껌벅이던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의 품에 안겨 젖을 빨던 아버지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이 그림은 천박한 포르노가 아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다. 부녀간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숭고한 작품이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림에 담긴 뜻을 아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위대한 그림을 감상한다. 오늘도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이 그림 앞에 서서 고개 숙여 묵도를 한다. 그리고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2) 조선어학회 선열추모탑이 한글마루지의 핵심 조형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어학회 순국선열들의 이야기는 위의 푸에르토리코 국립 미술관에 걸려 있는 “노인과 여자” 보다 더한 깊은 감동과 숭고한 애국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세종로에 조성하는 한글 마루지에는 조선어학회 순국 선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추모탑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만약 한글마루지에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양꼬 없는 찌빵이 되고 말 것이다.

3) 애국선열의 빛나는 유업을 후손들이 은혜로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 건립을 최초로 공론화한 한글학회 김 종택 회장은 “조선어학회 순국 선열 추모탑 건립의 일”이란 글에서 “세계 역사상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피나는 투쟁을 한 사례도 없거니와 그 빛나는 유업을 계승하고도 한 조각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못난 겨레도 없습니다.”라고 통탄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 독립 운동 사상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빛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아직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있으니 어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이제 못난 후손들은 더 이상 애국 선열의 빛나는 유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세종로 한글 마루지에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세워서 애국 선열들의 위업을 받들고 기려야 한다.

4) 이 승복 동상, 육탄 10용사 기념탑 등 온갖 탑이 다 있는데 조선어학회 순국선열추모탑이 없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수 많은 탑들이 있다. 오래 전 삼척 무장 공비 사건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다 죽은 이 승복 반공 어린이를 기념하는 탑에서부터 육탄 십용사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탑들이 당대의 위정자와 관이 주도하여 곳곳에 세웠다.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보면 조선어학회 순국 선열추모탑을 세우면 이땅에서 있는 그 어떤 탑보다 가치 있는 탑이 될 것이다.

5)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기념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역사상 자기 나라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33인의 순국선열들을 가진 나라 없다. 어떤 이는 옥사하고 어떤 이는 해방이 되었을 때 들것에 실려서 나온 장엄한 드라마는 없다. 그래서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기념탑이 될 것이다.

- 6)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동상 곁에 한글을 지킨 순국선열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글을 창제한 집현전이 광화문 뒤에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세종로 한 가운데 서 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동상 근처에 목숨 걸고 한글을 갈고 닦으며 지킨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이 쌍으로 서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지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닌가!

- 7)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상적인 교육장이 되기 때문이다.

세종로는 서울의 심장부이고 얼굴이다.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오고 간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추모탑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상적인 교육의 도장이 될 것이다.

- 8) 전 세계에 과학적인 한글과 위대한 애국 선열을 알려서 국위선양을 할 것이다.

외국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한글 창제와 이를 지킨 위대한 순국 선열들의 애국심을 자연스레 알릴 수 있어서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자랑하고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9) 감동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글마루지에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세우면 추모탑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관광객들의 심금을 울려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10) 치졸하고 조악한 조형물로 한글마루지 품위를 떨어뜨리고 혈세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세종로 한글 마루지에 치졸하고 조악한 한글 조형물을 설치하여 한글 마루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일부 조형물 중에는 치졸하기

짜이 없는 것들이 있다. 공명심에 들뜬 일부 관계자들과 2-3류 조각가 및 함량미달의 설치미술가들이 치졸하고 조악한 한글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이는 혈세 예산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글마루지의 위상을 떨어트릴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고, 혈세 낭비를 묻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생길 것이다.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다. 마침내 동상이 완성되어 제막식 날이 다가왔다. 조각가의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동상은 생전의 고인을 꼭 빼닮아 있었다. 페스탈로치가 무릎을 꿇고 있는 어린이를 굽어보고, 아이는 위대한 스승의 얼굴을 올려다 보고 있는 자세였다. 동상은 매우 훌륭했지만 고인의 절친한 친구들과 전문가들은 교육자의 소망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즉 보다 높은 곳,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인 그 어떤 진리에 대한 소망이 표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할 수 없이 동상을 다시 만들었다. 새로 만든 동상은 무릎을 꿇은 어린이가 스승의 얼굴 너머 먼 곳을 바라보는 형상이었다.

처음 만든 동상과 다시 만든 동상은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시선의 차이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동상을 다시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명심에 들뜬 일부 공무원들과 함량미달 조각가 및 관련자들이 치졸하고 조악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한글마루지에 세우려고 한다면 나는 한글 운동 동지들과 한글 단체와 손잡고 반대 투쟁을 할 것이다.

4. 문화의 거리는 외형으로 꾸미지 말고 역사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가 세종로 일대에 조성하는 한글 마루지에 반드시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세워야 한다.

조선어학회 순국 선열 추모탑 건립을 최초로 공론한 한글학회 김 종택 회장은 “세종대왕이 굽어보시는 세종 문화회관 옆자리에 ”조선 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크게 세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혼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길이 전

하는 역사의 표상이 되게 해야 한다”면서 “문화의 거리는 외형으로 꾸미는 것보다 역사로 채우는 것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한글 마루지에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세우지 않고 치졸하고 조악한 조형물들을 설치하여 예산 낭비를 하면 이는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것이며, 관계자들은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물론 한글 마루지의 위상을 떨어트린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글마루지 사업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대 역사이다. 얼치기 전문가들 말만 듣고 대사를 그르쳐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주제 발표]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해야 한다



허경무(문학박사, 서예가)

<문제의 제기>

어떤 사물을 원래의 모습대로 살려야만 의미가 있을 때에는 대개 원형복원을 하게 된다.

복원을 함에 있어 무엇이든 모두 과거 모습으로 회귀한다고 해서 그 뜻이 더 깊고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광화문 주변 도로, 건물, 수레, 사람들의 차림새까지 옛 모습 그대로 돌리려 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의 경우는 건물과 현판을 나누어 생각해야 오히려 현실성이 있고 의미도 더욱 잘 살려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고궁이나 사찰에 현판이 있다. 또 전화로 소실되어 복원을 한 것도 있다. 거의 모든 현판이 한자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광화문만큼은 이들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

이다. 이 시대의 문화 능력을 반영한 한글로 현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해야 하는 당위성>

세종로는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부로서 오늘의 역동적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이다. 옛것은 그 자체보다 그 정신을 오늘에 비추고 내일로 바람직하게 거듭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로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 광화문 한글 현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곳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적 자랑거리인 한글의 성지이다.

세종로란 이름은 세종대왕에서 비롯되었고, 세종로는 한글을 창제한 터전이면서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 이야기와 한글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거대한 정신의 텃밭이다.

또 1968년 복원 때에 한글로 된 현판을 단 지 이미 40년을 지냈고, 또 서울시에서 발표한 광화문 거리의 ‘한글 문화 특구’ 지정의 뜻과도 잘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글을 앞세워 세계로 도약하는 상징적 선언을 이 광화문 현판을 통해 밝혀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역사 정신을 잘 담아내야 한다.

광화문은 ‘복된 나라를 건설하자’는 뜻이 담긴 창조의 문이다. 이 광화문정신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 현판에 담아 미래의 꿈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사하는 가로쓰기 시대에 광화문 현판도 한글로써 이에 맞도록 해야 한다. 마치 ‘대한민국’ 국새를 제작하면서 한글로 하고 가로쓰기로 하는 당위성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에 ‘한글 마루지(랜드 마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문화·역사 중심가로인 세종대로 일대를 ‘한글 문화관광 중심지’로 조성, 세계적 문화유산이자 우리 고유문자인 한글을 문화 상품화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의 문자 특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번 서울시의 선언은 ‘광화문의 한글 현판’이 ‘한글 마루지 사업의 시작과 성공’을 알리는 중심에 서야 하는 당위성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 현판에 알맞은 한글 서체와 구성 방법>

한글의 여러 서체¹⁾를 활용하여 글자를 올리는 방법으로는 1) 붓으로 직접 쓰거나, 2) 선현의 목적에서 글자나 획을 모아 조립하여 집자를 하거나, 3) 보고 베껴 쓰는 임모를 하거나, 4) 오늘날 과학의 힘을 빌린 폰트 글자체로 하거나, 5) 글자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황과 격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글은 서체적 특징에 따라 느낌과 의미가 각기 다르다. 글자의 원형을 살리고 엄정함과 권위를 나타내는 데는 1) 훈민정음 해례본체가 알맞으며, 2) 고박하고 친숙한 고전미는 한글붓글씨 원조인 훈민정음 언해본체 정자가, 3) 붓글씨로서의 기맥과 생동감을 잘 나타내려면 언해본체 흘림이, 4) 미려하고 단정한 표현이라면 궁체가 각기 알맞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현판은 근엄하고, 웅장하면서도 친근감이 있어 시대와 국경을 넘는 세계 문자의 우뚝한 표상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광화문 현판은 우리의 자랑인 한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권위와 민족성을 담아야 하고, 격조 있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내일을 밝히는 데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는 창제 문자의 원형이자 세종대왕의 심오한 창제 정신이 담겨 있다. 또 창제 문자로서의 전형성, 글자의 안정감과 중후함이 있어 엄정함과 권위를 담고 있는 것이 서체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한글을 현판에 올리는 방법으로는 집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과 창제 문자로서의 시원을 그대로 살리자는 의미에서이다. 창제문자는 필서체로서의 특성이 본바탕이 아닌 바에야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누구의 붓글씨로 해야 할까 하는 것이 한글로 해야 하는 광화문 현판의 본령은 아닐 것이다.

집자를 하더라도 고전 원전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따서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민

1) 한글서체의 분류와 명칭은 필자의 분류체계임. 허경무, 박사학위 논문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연구]. 부산대학교, 2006. 저서 [한글서체의 원형과 미학]. 2008. 서울. 목가

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창제 때 문자의 획을 특징적으로 응용하되 한글의 창제정신과 제자 원리와 구성의 원칙을 담으면서도, 조형성과 생명력을 살려 서예술적 미감을 높이자는 것이다.

요컨대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써 하여야 하며, 세종대왕과 창제 문자의 높은 정신을 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창제 당시의 서체인 훈민정음 해례본체로써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서체는 필서체로서보다 제자의 원리와 구성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집자를 함으로써 더 의미를 높일 수 있다. 집자를 하더라도 글자를 따서 그대로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체에 대한 깊은 학문적 이해와 서예술에 대한 높은 조형력을 발휘하여 철학과 생명력과 미감을 함께 불어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글의 높은 뜻과 미래의 꿈을 울곧게 잘 살려 내야 하지 않겠는가?

허경무: 한글서체연구회 회장

누리편지: hhannae@hanmail.net.

누리집: <http://hannae.net/>(한내 허경무)

<http://www.seoche.co.kr/>(한글서체연구회)

<현판 도판>

① 해례본체(원필-한내)



② 해례본체(방필-한내)



③ 해례본체(방필-한내)



④ 해례본체(월인천강-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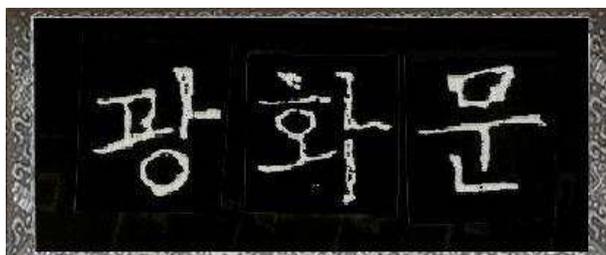
⑤ 언해본체 정자(한내)



⑥ 언해본체 정자(삼강오륜 집자)



⑦ 언해본체 정자(송강가사 집자)



⑧ 언해본체(흘림-한내)



⑨ 언해본체(흘림-한내)



⑩ 언해본체 진흘림(한내)



⑪ 궁체 정자(한내)



⑫ 궁체 흘림(한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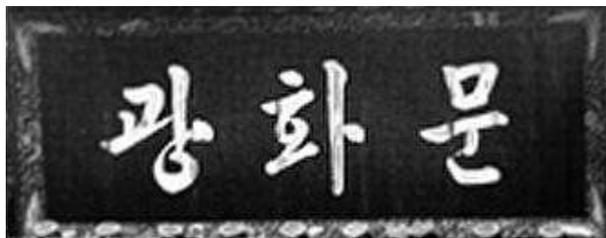


주제 발표: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해야 한다(허경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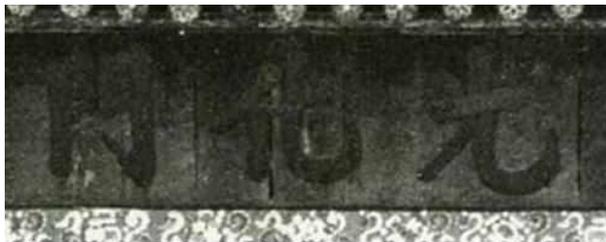
⑬ 궁체 진흘림(한내)



⑭ 언해본체 흘림(박정희대통령)



⑮ 한문1(임태영글씨-유리원판)



⑯ 한문2(갈라진 한문현판)



‘한글마루지’ 조성 · 광화문 헌판 다시걸기 “시민공청회”

[의견 발표] 강민경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종로구의회 의원 강민경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한글마루지조성과 광화문현판을 한글로 바꾸어야 한다는 시민 공청회는 세종정신과 한글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뜻 깊은 행사라고 봅니다.

역사 보존은 세월이 흘러야만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알게 되어 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세계 7대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문화적 가치와 우월성이 남다른 민족이라고 생각 됩니다

7대 문화를 일으키고 만들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 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조그마한 것에 머무르지 말고 더 넓은 세상과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만 우리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해야만 그 일이 뜻과 어우러져서 옳은 곳으로 보고 갈수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종로구의회는 2010년 5월20일 전국 최초로 한글사랑조례를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광화문일대를 한글문화관광중심지로 한글 마루지 사업을 조성하기로 발표한바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놓고 가야만 할 것 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세계 7대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의 중심지인 광화문의 현판을 한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주장합니다. 또한 한글마루지 조성사업에 우리의 선인들께서 한글을 아끼고 지키시기에 한평생을 바치신 조선어학회 사건 기념탑 건립을 꼭 해야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곳으로 향해서 가야 할 것 인가를 가슴깊이 새기며 일

‘한글마루지’ 조성 · 광화문 현판 다시걸기 “시민공청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글마루지 조성과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는 일은 우리들이 꼭 해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대한 민족임을 생각해봅시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발표] 구법회(한글학회 정회원)

[기고] 이참에 광화문 현판 ‘한글’로 달자

구법회(한글학회 정회원)

경향신문 2010-11-09

지난 광복절에 현판식을 가진 광화문 현판에 금이 가 책임 공방을 벌이며 나라가 떠들썩하다.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원했다는 현판이 몇 달도 되지 않아 금이 갔다니 시끄럽지 않을 수 없다.

광화문은 1399년(태조 4년)에 처음 건축됐으며,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865년(고종 2년) 경복궁을 중건할 무렵에 복원하였다. 그 후 1927년 일본의 문화말살정책 일환으로 건춘문 북쪽으로 옮겨졌는데, 6·25 때 폭격을 당해 불타버렸다. 이번에 헐린 광화문은 1968년 석축 일부를 수리하고 문루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다시 지어 40여년이 지난 건축물이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한글 현판을 달았으나,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한자 현판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글 단체들은 이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광화문 현판만은 한글로 써서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광화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 자리잡고 있는 경복궁의 정문이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세종대왕이 이 궁궐 안에서 한글(훈민정음)을 만들었으며, 광화문이란 이름도 세종대왕이 지었다. 그런 연유로 광화문 앞길이 세종로이며, 바로 앞에 세종대왕의 동상이 서고 옆에 세종문화회관이 있다.

한글은 온 누리의 으뜸 글자로 서양 학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부러워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훈민정음 해례본(한글)이 세계 문화 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지 오래다. 광화문은 1339년에 처음 지은 것이지만 네 번째 다시 짓는 건축물이다.

문화재청은 광화문 현판을 옛 광화문 모습이 담긴 유리원판을 토대로 고종 당시 광화문

중건책임자 겸 훈련대장이었던 임태영의 현판 글씨를 복원한 것을 단 것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현판도 아닌 두 번째 건축물의 현판을 막대한 돈을 들여 복원한 것이다. 이 한자 현판은 혈세만 낭비한 ‘짜퉁’이다.

21세기는 우리가 빠르게 도약하며 겨레와 나라가 급성장하는 희망찬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열과 힘이 실린 한글이 진가를 발휘하며 앞으로 온 누리에 막강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중국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광화문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꼭 들러야 할 곳이며 여기서 반드시 기념 사진을 찍는다. 여염집으로 치면 종갓집 대문이고 현판은 문패에 해당한다. 여기에 한자 현판을 달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글자가 없어서 중국글자를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국 관광객은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역사를 떠올리며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대국의 호못함을 만끽할 것이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한글 단체들은 지난 2월10일 문화재청장에게 광화문의 새 현판 글자는 한글로 제작해야 한다고 건의문을 냈으나 한자 현판을 고집했고, 그 이후에도 6월에 두 차례나 새로운 건의문을 냈다. 지난 7월2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께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묵살됐고 현판은 금이 가고 말았다. 날림공사니, 날짜를 앞당겼느니, 이제 와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필자는 이참에 우리의 미래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달 것을 제의한다. 훈민정음체를 집자해서 한글 현판을 만들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이다.

[의견 발표] 신승일(한류전략연구소 소장)

광화문이 빠진 한글 마루지 사업

(문화저널21, 2011년 2월 8일)



요 몇 년 동안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글과 관련된 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의 세종동상과 <세종이야기> 전시관, <한글박물관> 건립사업 등이 그것이다. 새해 들어서 서울시는 세종대로 일대를 한글 브랜드화하는 '한글 마루지' 사업을 내놓았다. '마루지'는 영어의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뜻이라고 하니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지인 광화문 일대가 어떻게 변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한글 마루지' 사업은 세종 탄신지인 통인동 일대와 광화문에서 세종로 4거리에 이르는 주변 지역 47만㎡(14만 2천 평)에 한글 11,172자 마당 조성, 세종 생가 복원, 주시경 기념공원 조성, 한글사랑방 설치 등을 포함한다. 도로표지판과 각종 시설물, 상점 간판의 표기가 모두 한글로 바뀌는 '한글특구'가 생겨난다.

만약 서울시가 하드웨어적 시설 건립에만 신경 썼다면 구시대적 정책으로 환영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관광객에게 한글 이름을 써서 표구해 주기, 한글디자인을 살린 도로시설·표지판 등의 공공디자인 및 픽토그램 공모전 개최, 한글 독음(讀音) 프로그램 개발, 세종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세종대왕 문해상(文解償)의 국내 유치 등 소프트웨어적

인 운용정책이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하니 반갑고 기대된다.

그러나 이 ‘특구’에 경복궁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우리 민족이 세상에 내놓을 찬란한 문화유산이자 최고의 문화상품인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된 곳이며 한글의 얼이 살아 숨 쉬는 곳이 바로 경복궁이 아닌가? 세종대로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시작한다. 광화문은 이번 ‘한글 마루지’ 사업의 지리적 경계선에 있지만, 광화문 현판은 지금 재제작 문제로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세종동상을 바라보며 저 멀리 북악산의 운치를 즐기던 외국인 관광객의 시선이 <門化光>이라 쓰인 현판에 머물러 무슨 글자냐고 물어온다면, 누가 무슨 설명을 해 줄 것인가?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를 곧 맞이할 것인데, 똑같은 질문은 수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한자 현판을 고집하는 문화재청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온통 한글이 꽃핀 ‘한글특구’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에 매료된 외국인 관광객에게 궁색한 말로, 고종 당시의 현판 모습을 ‘쌍구모본’ 방식으로 디지털 복원한 IT기술의 승리라고 자랑할 것인가? 문화재청이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한자 현판은 100년 전에 찍은 작고 흐릿한 사진을 디지털로 복원해서 본뜨고 색칠해 만든 복제품(클론)이다. 즉, 유일한 것이 아니라 무제한 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생명력과 물질적 연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최근 어느 칼럼에서 ‘문화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이 시대에 새로 세운 광화문의 현판에는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대한제국이 몰락해 가던 때와 G20정상회담을 치른 대한민국의 현 시점을 비교하건대, 과연 어떤 정신과 문화를 광화문 현판에 담아야 할 것인가?

‘한글 마루지’ 사업의 성공 여부는 광화문 현판 글씨가 최종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디자인 서울’이나 ‘한강 르네상스’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반해 ‘한글 마루지’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광화문 현판만이라도 한글로 쓸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견무 문화재청장과 담판을 했으면 한다.

훈민정음체, 월인천강지곡체, 당대의 명필, 고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현판 등 대안은 많다. 그래도 안 되면 국민공청회 등을 거쳐 시대정신을 담은 현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론을 모았으면 한다. '현판 제작위원회'에 글씨 전문가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작한 지 석 달도 안 돼 현판에 균열이 간 것은 광화문 앞에 앉아 계신 세종대왕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시간을 벌여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신승일: 한류문화산업포럼 회장, 한류전략연구소 소장

[의견 발표] 이태길

한글 광화문 현판 달기 사업

1. 핵심 내용: 광화문 현판 ‘한글’로 달기 모임을 결성하고 찬성하는 이는 1인당 1000원씩 계좌 입금한다. 모임은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이태길, 구법회 등 5명 정도의 공동대표제로 한다.

계좌입금액의 의미는 (1) 찬성의 뜻(참여 의식이 강해지고 자부심을 가짐) (2) 현판 제작비에 쓰이며, 이 운동은 우리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추진하며, 어느 시한까지 한글 간판이 무산될 경우 한글학회에 기증하여 한글 발전과 ‘한글 마루지’ 사업에 쓰도록 한다.

2. 진행 방법

(1) 계좌 개설은 한글학회, 또는 공동대표자 명의로 한다.

(2) 동조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학생, 어린이 모두 가능하며, 찬성 참가비는 1인1000원으로 한정한다.

(3) 이 운동의 방법은 다단계 판매 방식과 비슷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전파한다.

(4) 한글 현판의 필요성에 대한 유인물 자료(2,3쪽)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전파한다.

(6) ‘한글 현판’을 정부가 안을 확정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갈 제작 설계안을 마련했다가 즉시 제출한다.

ㄱ. 서체 ㄴ. 규격 ㄷ. 간격 ㄹ. 나무 재질 ㅁ. 도색 재료 등

(7) 전국의 국어교사에게 이 사업 홍보 : 1학교 1교사-동료교사-동문 등 확산

3. 이 사업을 위한 행사(이벤트) :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활용하며,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축일 등 특별한 날 행사를 진행한다.

1회 3/1 2회 4/28) 충무공 탄신일 3회 5/5, 5/8

4회 6/6 5회 7/17 6회 8/15

7회 9/7사회복지의 날 8회 10/9 최종 목표

[참고 자료]

세종과 한글, 그리고 광화문 현판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이대로

며칠 전에 문화재청은 광화문 현판 글씨를 어떻게 어떤 글자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잘한 일이고 다행스런 일이다. 광화문 현판 글자는 그 상징과 위치와 역사로 볼 때 매우 중대한 일이기엔 문화재위원 몇 사람이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멀쩡하게 달려 있던 한글 현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떼버린 것도 그렇고, 모조품 한자로 다시 써서 단 것도 너무 경솔했다. 나는 2005년에 한글 현판을 떼겠다고 할 때부터 지난해 한자 현판을 달 때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 문화재청에 의견을 내고 진지하게 논의한 뒤에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해 110년 전 나라를 일제에 빼앗길 때 걸렸던 한자 현판 사진을 디지털 복사해서 쌍구모본 방식으로 만들어 달았는데 눈으로 봐도 임태영의 글씨와 같지 않은 모조품이다. '쌍구모본'이란 본떠서 색칠해 만든다는 말로서 모조품을 만드는 것인데 어려운 말로 원형 복원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그 현판을 걸고 나라가 망했기에 운이 없고 재수 없는 현판이어서 그 원형이 있다 해도 마땅치 않은데 그걸 본떠 만든다기에 그 현판을 걸 때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하늘이 그 잘못을 알려주려고 세 달도 안 되어 금이 갔다는 느낌이다.

건물은 옛 건축 양식과 모형으로 짓더라도 그 문패는 오늘날 쓰는 한글로 시대정신과 국민의 소망을 담아 만든 현판을 달아야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고 문화관광 자원이 되며, 외국인과 후손들에게도 체면이 선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서울의 중심으로서 중국의 천안문이 북경과 중국을 상징하듯이 대한민국 상징이고 서울의 얼굴이다. 중국 천안문 안의 자금성의 현판은 모두 만주글자와 한자를 함께 쓴 것이지만 '천안문'은 그런 글

씨로 쓴 현판이 아니다. 현재 중국의 국가 휘장과 지도자 사진, 정치 구호를 붙여 나라 발전에 이용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원형 복원을 강조한다. 그런 원형 복원 차원이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한글 현판을 다는 게 옳다. 그 현판은 오늘날 대한민국 지도자가 세종정신과 지도력을 본받고 한글로 나라를 빛내겠다는 소망과 시대정신을 담아 써서 수십 년 동안 걸었던 진짜 원형이기 때문이다. 그 정신으로 광화문뿐만 아니라 세종임금 무덤인 영릉과 충무공이 살던 현충사, 3.1 만세운동을 한 탑골 공원 등과 겨레와 나라의 중요한 곳곳에 한글현판을 달고 한글문화 발전 정책을 폈다. 그 한글 현판은 그가 한글을 좋아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집권 초기 국민의 소리를 듣고 민주, 세종정신과 한글사랑을 실천한 것이며 그 뒤 세계가 놀랄 정도로 나라가 발전했다.

그러나 새로 광화문을 짓고 새 현판을 만들어 단다고 하기에 세종정신과 역사를 살리고 세계 으뜸가는 한글이 태어난 곳이 광화문 안의 경복궁임을 뽐내자는 뜻에서 세종임금 시대 훈민정음 글꼴로 만들어 달자고 했다. 훈민정음 28자를 조합하면 수만의 글자를 만들 수 있고,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언해본에 있는 한글 자모 “ㄱ ㆁ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글꼴을 따다 조합해서 “광화문”이란 글씨를 만들어 달고 외국 관광객과 후손들에게 그 창제 정신과 원리를 설명하면 감동할 것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를 한글문화 관광 중심지로 만드는 ‘한글 마루지’ 사업을 발표했고, 정부는 광화문부터 한강까지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기로 했다.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 겨레자주문화 성지로 만들고, 주시경 선생이 살던 집터 옆 공원에 선생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다. 거기다가 일제 때 조선어학회사건 기념탑을 추가해 건립하고 서울의 중심이고 한국의 얼굴인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달면 이 사업도 성공하고, 우리 자주문화가 꽃핀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겨레의 역사와 우수함에 감동할 관광자원이 되어 돈도 벌고 자주문화를 꽃피워 인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괜히 옛 사람들의 한자 붓글씨를 따서 만든다는 논쟁으로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자. 서로 좋아하는 인물의 글씨로 하자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화문 현판 문제 정답은 한글 현판 달기다.

한글은 이 겨레와 나라의 자랑스런 보물로서 자긍심이고 자존심이며 상징이다. 나라의 중심이고 서울의 얼굴인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달 때 세종정신과 한글이 빛나고 나라와 겨레가 빛난다. 이것은 상식이고 이 시대 우리 의무요 책무다.

[참고 자료: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보내는 밝힘글]

‘광화문 현판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에 새로 지은 광화문에 ‘門化光’이란 시대에 맞지 않는 한자 현판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2005년 문화재청이 40여 년 동안 멀쩡하게 걸려 있던 ‘광화문’이란 한글 현판을 떼고 한자 현판을 단다고 했을 때부터 이를 반대했고, 지난해에도 문화재청에 찾아가서도 우리 뜻을 전한 일이 있으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반대 뜻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우리의 뜻과 많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 8월 15일에 ‘門化光’이란 한자 현판을 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판을 단 지 두 달 만에 금이 가서 새로 만들기로 하고 오늘 첫 제작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밝힙니다.

1. 문화재청장은 ‘門化光’이란 한자 현판을 단 것이 진짜 원형 복원이라고 생각하는가?
2. 문화재청장은 한자 현판을 단 것이 잘한 일로서 자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3. 문화재청장은 한자 현판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동상과 한글이 태어난 경복궁과 그 앞 세종대로란 이름과 잘 어울린다고 보는가?
4. 문화재청장은 100여 년 전 찍은 조그만 사진을 복제하고 쌍구모본 방식으로 만든 저 한자 현판은 모조품이며 그것을 원형복원이라고 한 것은 국민을 속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최근에 조선일보에 쓴 글에서 “이 시대 건물에 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한글 현판을 달아야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이견문 문화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어제 문화방송 보도를 보면 광화문 현판 문제는 지난날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한글로 할 것인가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언제 누구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는지 밝히라!

7. 지난해 만든 한자 현판이 석 달도 안 되어 갈라져서 다시 만듬으로써 아까운 나라 돈을 날려 보내게 한 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는가?

끝으로 우리는 이견문 문화재청장에게 광화문 현판과 관련하여 방송이나 신문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 동안 한글단체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써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는데 이러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은 민주시대 공직자로서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본다. 만약에 우리 질문과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반민주, 한글 박해자로 한글 역사에 기록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월 26일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달기를 바라는 한글단체와 시민들

[참고 자료: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권력 남용 항고장(밝한샘)]

항 고 장

2010형제124766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권력남용

고 소 인 : 밝 한 샘(연락처 : 018-281-6663)

김포시풍무동740 장릉마을 삼성아파트 103동 1401호

피고소인1 : 전 문화재청장 유 흥 준 외 문화재위원들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피고소인2 : 현 문화재청장 이 건 무 외 문화재위원들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위사건 2010형제124766에 관하여 귀 청에서 2010년12월3일 각하 처분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고소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1. 40년 가까이 광화문에 걸려있던 한글로 쓴 “광화문이란 현판”이 뚜렷한 이유 없이 떼어져 없어졌습니다.

2. 그런데 검찰은 애매한 표현으로 고발장을 각하했으니 현행법들을 봐주자는 결

론밖에 안됩니다. 봐 줄 일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3. 검찰의 판단은 냉철해야 합니다. 훼손한 증거가 확실하고 많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지른 일이니 그 들은 아직도 현행범입니다.

4. 검찰이 역사적이고 중대한 문화재 파괴 사실을 각하라는 말로 모른척해서는 안됩니다. 훼손된 것도 확실하고 현재 가짜 문화재가 걸려 있는 것도 확실한데 어찌된 일인지 법의 심판은 졸고 있습니다.

5.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문화재법 위반 사실을 엄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6. 정 처벌을 못 하시겠으면 최소한 원상회복이라도 되도록 조치해 주셔야 검찰의 위신도 살고 고발인의 뜻에 찬동하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도 달랠 수 있을 일이니 멋진 결단으로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임 : 국무총리실에 보내졌던 진정서사본 3부

2010. 12. 27.

위 항고인 박 한 샘

[참고 자료: 광화문 한글 현판 달기 지지 서명(다음 ‘아고라’)]

한글광화문현판 지지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글광화문현판달기 현재의 서명상황

서명기간(총 62일간): 2010년12월29일 ~ 2011년2월28일
 목표서명인원수 : 500명
 현재서명인원수 : 258명
 서명완성률 : 51%
 남은일수 : 30일
 기간진행률(일수비) : 52%
 광화문 현판 한글로 서명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1908>

공자, 뉴턴, 아인슈타인과 세종대왕 공적비교

내가 이런 제목을 달면 이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왜냐 하면 아마 동아시아에서의 공자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세계가 공인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이니 그럴 법도 하다. 세종대왕의 영향력은 아직은 우리 민족 속에만 국한되어 있고 우리 민족조차도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정도로만 세종대왕을 리해하고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같지도 않은 논리를 내세워 세종대왕의 문자창제 설조차 부인하려고 하고 있으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실제로는 세종대왕님의 공적은 가히 앞의 세 사람 공적과 비견될 정도의 위대함 그자체이다. 아직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 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한글의 위대성을 잘 알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그 위대성을 잘 모르고 있고 틀린 오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례로 적지 않는 한글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꼽는데 제작일자, 작성자가 명확한 것까지 넣고 있다. 제작일자가 어찌 우수함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랴! 공자의 리론은 정확한 완성일자가 없다. 그

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리론을 천리처럼 떠받들고 모신다. 제작일자가 있음은 현존 문자체계중 훈민정음이 가지는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일 뿐이다. 그 자체로서는 우수성의 요소가 될 수는 없다.

제작자도 마찬가지이다. 제작자가 명확함은 하나의 특징이지 우수성이 아니다. 우수성은 평가대상자체의 역할과 능력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 한글의 우수성은 어디에 있는가?

- 그것은 (1)완벽한 음성합성규칙,
- (2)발음기관을 모방한 독특하면서 단순한 자모체계,
- (3)윗 특징들로 인해서 배우고 응용하기 쉬운 점 등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으로 되는 것은 음성합성규칙으로서 이 리론의 형성을 바탕으로 다른 모든 우수한 특징들이 꽃 피울 수가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훈민정음의 본질은 음성합성원리이며 글자 형태등은 부가적인 요소일 뿐으로 그 자체가 훈민정음이 아니다. 세종대왕님도 이러한 생각으로 창제한 문자를 XXX문자 혹은 XXX글이 아닌 훈민정음 백성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소리라는 명칭으로 공포하였을 것이다.

아래에 내가 만든 리스트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한다. 제목은 <공자, 뉴턴, 아인슈타인과 세종대왕 주요공적비교>이다.

공자, 뉴턴, 아인슈타인과 세종대왕 주요공적비교

		공자 유교사상	뉴턴 3법칙	아인슈타인 상대론	세종대왕 음합성리론
리론 자체	리론 수립난이도	분량 방대	인식의 틀을 타파	인식의 비약	인식의 비약
	리해난이도	보통	보통	힘듦	쉬움
	기억난이도	힘듦	쉬움	보통	쉬움
	응용난이도	보통	쉬움	힘듦	쉬움
	완벽성	평가힘듦	상대론보다 완벽하지 못함	이 리론도 완벽한 것은 아님	완벽함
역할관련	영향력있는 부분	부분적	리론전체	리론전체	리론전체
	영향지역	동아시아 여러나라	세계	세계	우리민족
	영향범위	인간관계	산업과 자연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모든분야
	영향기간	점점 약화되지만 영원할걸로 생각한다.	쉬우면서도 더 완벽히 실제와 맞는 리론이 나올때까지	쉬우면서도 더 완벽히 실제와 맞는 리론이 나올때까지	영원하며 또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기여	혼란한 사회질서를 잡는데 일조	기계산업혁명을 일으킴	인류의 우주관확립에 크게 도움	문명퇴치와 사회활성화에 결정적역할
함의	철학적함의	치신행위를 규범화	사물의 기본작동규칙은 단순함을 입증	사물의 기본작동규칙은 단순함을 입증	세상의 온갖 음이 단순히 세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증명

윗 그림중 노란색배경을 한 항목은 상응평가항목(한 가로줄)에서 가장 우수 함을 의미

위의 리스트는 내가 만든 것인만큼 비록 내가 공정한 각도로 평가한 것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편향된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님들은 자기절로 항목을 설정해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란다. 전제는 님이 공정한 자세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이 전제가 만족되면 그대의 귀속처가 어디이던 지를 막론하고 비슷한 결론에 이를 걸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가기준은 알면 쉽고 아는 과정은 어려울수록, 파급범위와 깊이가 넓고 깊을수록, 작용시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주었다.

위의 표로 보면 공자가 최고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하며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각각 6, 4곳이 되고 세종대왕은 <영향지역>외의 모든 곳 - 10곳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을 수가 있다. 위의 리스트에서는 단연 세종대왕님의 음성합성리론이 돋보인다.

내가 전에 쓴 문장 <도구와 언어 그리고 한글>속에서 <절대 대부분의 노벨상수상자들의 성과는 훈민정음창제의 성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도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절대 대부분의 민족구성원들은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공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기억하시라. 한글의 우수성의 실질은 음성조합리론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그 우수성은 충분히 설명된다.

생각해 보시라. 국제표음체계는 19세기중반에 최고의 음성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멧힌 체계라고 보기 힘들다. 과거에 대부분의 우리조상들이 평생문맹이라는 꼭지를 달고 살았지만 현재의 우리민족구성원들은 초등정도면 19세기 최고음성전문가들 수준의 음성관련 이해를 하고 있다. 이것이 그래 대단하지 않은가?

[참고 자료: 언론 보도]

세종대로 주변을 한글 관광지로… 1만1172개 돌포장석 등 ‘한글 마루지’ 조성

[2011.01.12 21:53]

서울시는 12일 세종대로 주변을 한글 문화관광 중심지로 꾸민다고 밝혔다.

시 계획안에 따르면 광화문~세종로사거리 주변 통의·통인·내수·세종로동 일대 47만㎡에 한글을 주제로 한 ‘한글 마루지(랜드마크를 뜻하는 우리말 조어)’가 조성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에 8868㎡ 규모의 ‘한글 11172 마당’을 만들 계획이다. 이곳 **바닥**은 한글 자모 24자로 만들 수 있는 1만1172개 글자를 하나씩 써넣은 돌포장석으로 꾸며진다. 돌포장석은 가로와 세로 각각 10cm 크기이다. 글자는 다음달 **공모**로 선정된 시민들이 쓸 예정이다.

시는 또 한글학회와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집터, 사직로를 잇는 900m 지역에 주시경 선생을 기념하는 시범가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수동 주시경 선생 집터 인근에는 기념공원이 들어선다.

시는 서촌 지역 **한옥**을 매입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글을 체험할 수 있는 ‘한글 사랑방’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통인동 자하문로 일대 3861㎡ 부지에 세종대왕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한글을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 한글독음 **프로그램**을 7월까지 개발, **국제선** 항공기와 외국에 설치된 한국어 보급기관인 세종학당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참고 자료: 언론 보도]

한글 단체 “광화문 현판 재제작, 한글로” 촉구

2011년 01월 26일 (수)

박선혜 기자 ✉ museaoo@newsj.com

공개 토론 제안... 문화재청에 의사 전달해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한글 단체들과 광화문 현판 한글로 걸기 모임(한글 단체)’이 광화문이 보이는 정부종합청사 북쪽 인도에서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글 단체는 문화재청이 같은 시각에 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금이 간 광화문 한자 현판을 떼고 다시 만들어 걸기 위한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0 분에 걸쳐 진행된 기자회견은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차재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김경희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송현 한글문화원장 · 시인 등 12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대로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광화문 현판을 한자로 단다고 했을 때부터 이 자리에서 수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럼에도 한글 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는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태도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흐릿한 사진을 디지털 복원한 것은 ‘쌍구모본’ 방식 즉, 본뜨고 색칠해 모조품을 만들었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개 토론을 요구하는 성명서 맺음말에는 그동안 한글 단체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써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으며, 이러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은 민주시대 공직자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희 공동대표는 “새로운 광화문 건물에 걸맞도록 글자도 당연히 우리 한글로 써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위대한 우리 한글로 광화문을 써서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현 한글문화원장도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경복궁에 자랑스럽고 과학적인 한글로 문패를 달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글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 현판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하고, 오전 11시 경 고궁박물관 회의실을 찾아가 문화재청 광화문 관계자인 김원기 과장에게 공개토론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한글 단체는 지난해 활동 투쟁 기록을 모아 <門化光 철폐 투쟁 백서>를 출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6일 정부종합청사 북쪽 인도에서 광화문 현판 재제작과 관련해 한글 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글마루지' 조성 · 광화문 현판 다시걸기 "시민공청회"

"네! 참고하겠습니다"

연합뉴스 / 백승렬 / 입력 2011.01.26 12:54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말글문화협회 이대로(오른쪽) 대표가 2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고궁박물관에서 김원기 궁능문화재과장에게 '광화문 현판 관련 공개토론제 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1. 1. 26



srbaek@yna.co.kr

(끝)

세종대로 일대에 '세종대왕 생가' 재현 추진한다

통의·통인·내수·세종로동 47만㎡ '한글마루지'로 조성, 한글문화관광지로

2011년 01월12일

[이백수 bsl1952@hanmail.net](mailto:이백수_bsl1952@hanmail.net)



▲ 세종대왕이 나신곳임을 알리는 1980년에 설치된 표석, 평소엔 관리가 안돼 주위엔 쓰레기가 쌓여 있기도 한다. © 이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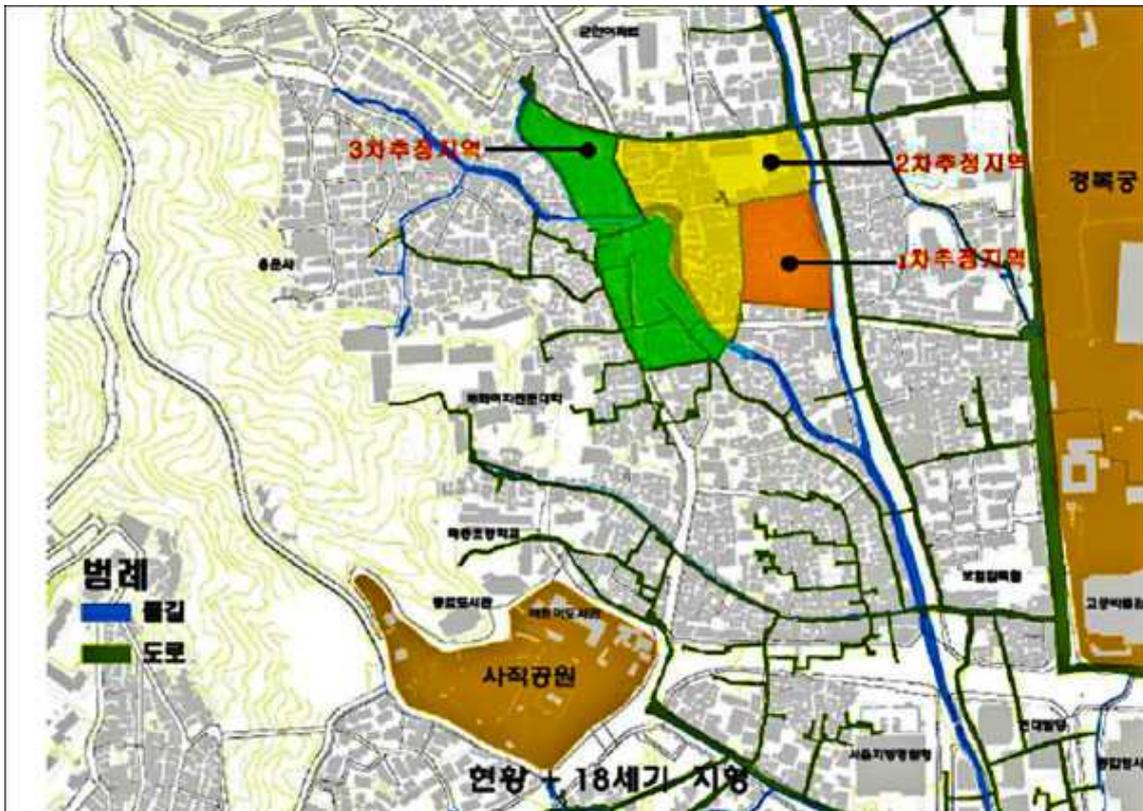
12일, 서울시는 세종대로 일대 통의·통인·내수·세종로동 등 47만㎡에 '한글 마루지(랜드마크)'로 조성해 '한글 문화관광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루지는 랜드마크를 의미하는 우리말로 세종대로 일대는 세종대왕 생가터·주시경집터·한글학회 등 한글 관련 기존 시설들이 풍부해 한글을 주제로 하는 문화관광 중심지 조성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특히 서울시는 민간협조를 받아 이 일대 지역 내 간판, 표지판 등 모든 문자들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한글 마루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지인 경복궁서측과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 환경정비구역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글 마루지’에 공원·시범가로 등 한글 관련 시설 조성 ·한글 사랑방 운영·생가 재현 등 한글 문화상품화 ·한글교실·붓글씨 체험 등 한글체험관광 활성화·한글 문화콘텐츠 지원·한글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글 마루지를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한글의 상징으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 세종대왕 태신지 추정 위치도(2010. 1월 서울시에서 세종연구소 박현모 교수 등에 연구용역한 ‘세종시대 도성 공간구조에 관한 학술연구’에 따 ©이백수

<세종대왕 생가' 재현 추진 - 종로구 통인동 일대>

서울시는 한글을 창제한 민족의 스승 세종대왕이 태어난 생가 재현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세종대왕 생가터를 알려주는 것은 통인동 자하문로 보도위에 1980년 설치된 표석뿐이다.

지난해 1월 서울시에서 세종연구소 박현모 교수 등에 연구용역한 ‘세종시대 도성 공간구조에 관한 학술연구’에 따르면 세종대왕 생가는 준수방 잠저(세종실록)로 통인동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선시대 대군의 가사(家舍) 및 가대(家垜)의 규모로 볼 때 약 3,861㎡로 추정되는 세종대왕 생가 재현은 위치, 규모, 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생가 재현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먼저 형성된 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이곳엔 저층의 양옥과 한옥이 밀집되어 있다.



▲ 세종로공원 조감도 © 이백수

<세종로공원에 8,868㎡규모‘한글 11,172마당’상반기 중 조성>

먼저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옆에 위치한 세종로공원에 8,868㎡규모 ‘한글 11,172마당’을 올 상반기 중 조성한다.

‘한글 11,172마당’이란 한글자모 24자로 만들 수 있는 총11,172 글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로, 세로 10cmx10cm 돌포장석에 11,172명의 국민이 한자씩 써서 공원 바닥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한글11,172마당’ 조성에 참여할 시민을 오는 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글학회~주시경집터~사직로’900m 주시경길 시범가로 조성>



▲ 주시경길 © 이백수

서울시는 ‘한글학회~주시경집터~사직로’를 잇는 연장 900m엔 주시경길 시범가로 조성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국어학자인 주시경은 일제 강점기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글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끊임없이 진행해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시범가로에는 픽토그램을 활용한 도로 표지판, 안내표지판과 한글 벤치, 한글관련 야외 전시와 각종 퍼포먼스 공간을 마련한다.

종로구 내수동 75번지 일대 약1,700㎡에는 주시경 선생을 기리는 기념공원도 조성한다. 주시경 집터는 현재 주상복합건물(용비어천家)내에 주시경집터를 알리는 기념조형물만 설치되어 있다.

<1박이상 묵으면서 한글을 맛볼 수 있는 '한글 사랑방' 운영>

서울시는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한글 마루지」 대상지에서 최소 1박 이상 체류하면서 한글을 배우고 체험하며,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한글 사랑방(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해 전통한옥 육성지역인 서촌지역의 적정시설 대상지를 선정, 매입해 ‘12년 마당과 뒤뜰이 있는 한옥건물로 리모델링해 운영할 계획이다.

숙박방은 온돌·창호 등 한옥구조를 유지하면서 독립공간은 보장하되, 세면, 식사 등은 한국전통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약10인 규모의 숙박방, 공용식당(마루), 정보마당(pc, 독서실), 사랑채(휴식, 대화), 관리실 등으로 구성된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위해‘세종대로 일대 한글마루지 종합계획’마련>

서울시는 세종대로 일대 공간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종대로 일대 한글마루지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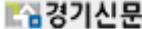
'한글 마루지 자문단'은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글, 한글한류, 외국인, 디자인, 한글상품, 역사문화 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고유문자를 소재로 마루지를 조성한 도시는 서울이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이라며 "세종대로 일대를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가 흐르는 곳으로 조성해 한글을 세계인이 사랑하고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cafe.daum.net/hanmalgul/MiQ2/226>

[창룡문] 광화문 한글현판

2011년 01월 28일 (금) 전자신문 | 12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제주도 유배 길에 추사(秋史)는 해남 대흥사에 들러 초의(草衣)를 만났다. 귀양살이 가는 처지임에도 추사는 그 기개는 살아 있어 대흥사의 현판글씨들을 비판하며 초의에게 하는 말이 “조선의 글씨를 다 망쳐놓은 것이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인데, 어떻게 안다는 사람이 그가 쓴 대웅보전 현판을 버젓이 걸어놓을 수 있는가”라며 짜증을 냈다.

초의는 그 극성에 못 이겨 원교의 현판을 떼어 내고 추사의 글씨를 걸었다. 햇수로 9년 만에 유배가 풀린 추사는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 대흥사에 들렀다.

초의를 만나 회포를 풀던 자리에서 추사는 말했다. “옛날 내가 귀양길에 떼어내라고 했던 원교의 대웅보전 현판이 지금 어디 있나? 있거든 내 글씨를 떼고 그것을 다시 달아주게. 그때는 내가 잘못 보았어.”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서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광화문이다. 따라서 광화문의 현판을 가리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명함’이라고 부른다.

이 광화문의 현판글씨가 한글로 돼있었다. 1968년 광화문을 복원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다. 그리고 이 글씨는 어느덧 40여 년의 세월속에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

그런데 지난 해 광복절에 새롭게 복원한 광화문 현판은 다시 한자로 돌려졌다. 그것도 디지털로 복원된 글씨로 말이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기만 하다. 그래서였을까. 이 현판은 얼마 못가서 균열이 생겨 논란 끝에 다시 제작키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판 글씨를 어떻게 하느냐다.

‘한글마루지’ 조성 · 광화문 현판 다시걸기 “시민공청회”

문화재청은 다시 제작하는 광화문 현판 글씨는 문화예술계 원로, 전·현직 문화재위원, 언론사 및 관련단체 등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화재청의 처사를 볼 때 이 일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광화문’이라는 버젓한 한글 현판을 두고 모조품을 내다 건 것 만 해도 영 못마땅한데 이제 와서 전문가니, 공청회니 운운하며 요란을 떠는 모습은 영 미덥지가 않다.

혹시라도 알량한 자들이 ‘박정희 흔적지우기’로 한글현판을 내렸다면, 다시 그 현판을 다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내 나라 내 글자로 명함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인가.

/이해덕 논설위원

[태평로] 광화문 현판, 이참에 글씨도 바꾸자

- 김태익 논설위원 tikim@chosun.com

입력 : 2011.01.03 23:30



▲ 김태익 논설위원

문화재청이 복원한 지 석 달 만에 갈라졌던 광화문 현판을 바꾸기로 했다. 옳은 방향이다. 아무리 감쪽같이 이으면 된다 하지만, 한 번 갈라졌던 걸 아무 일 없었던 듯 포장만 다시 해 넘겨주는 건 역시 후손들한테도 낯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나무만 바꾸면 광화문 현판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걸까.

광화문 현판이 갈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한 서예인은 “그래도 글씨만 괜찮다면…”이라고 했다. 현판은 글씨가 우선인데 이미 글씨가 영 아닌 터에 나무가 좀 갈라졌기로서니 무슨 큰 문제냐는 야유(揶揄)였다. 광화문 현판 글씨는 1865년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당시 공사 책임자였던 훈련대장 임태영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궐 정문의 현판은 그 궁궐의 얼굴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원된 광화문 현판 글씨에서 조선왕실 법궁(法宮)의 위엄과 품격과 기세와 멋을 찾기 힘들다고들 한다.

더 큰 문제는 현판의 글씨가 엄밀히 말해 임태영의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글씨는 일본 도쿄대가 소장하고 있는 1900년대 초 광화문 사진 속에 나오는 임태영의 글씨를 컴퓨터로 복원한 것이다. 그러나 워낙 멀리서 찍은 탓에 아무리 복원해도 글씨 원형이 70% 정도밖에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 광화문 현판 글씨에서 사람들이 아우라를 느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임태영의 글씨 흔적과 컴퓨터가 합작한 가공품에 불과한 탓도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대안은 여러 가지다. 우선 우뚝한 명필들이 남긴 글씨 중 ‘光’ ‘化’ ‘門’ 세 글자를 모으는(集字) 방법이 있다. 조선 중엽 한석봉의 글씨는 근엄하고 강건해서 조선 중·후기 사대문과 궁궐 현판 글씨가 그의 서풍(書風)을 따랐다. 그의 대자(大字)천자문에 나오는 글씨로 광화문 현판을 만들면 조선시대 현판 글씨의 원류를 복원한다는 뜻이 있다. 또 올해로 탄생 1300주년을 맞는 신라시대 명필 김생의 힘 있고 근육질 넘치는 글씨를 모으거나,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모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복원이 단순한 과거의 재현에 그쳐선 안 된다며 광화문 현판에 우리 시대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글씨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사람의 최고 글씨를 가려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 그 자체로 현대 서예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한글 현판을 다시 걸자는 여론도 여전히 많다. 1968년의 광화문 복원은 일제에 의해 경복궁 동쪽으로 쫓겨갔다가 6·25 때 불타던 광화문을 본래 자리에 되살린다는 의미가 있었다. 지금이야 시멘트 복원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당시로선 없는 나라 형편 속에 나름대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었다.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쓴 한글 현판은 이런 시대적 사연을 안고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대한민국](#) 중흥의 목격자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았다.

먼 훗날 역사는 2011년 이 땅에 살았던 이들이 우여곡절 끝에 광화문 현판을 다시 만들어 건 사실을 기록할 것이다. 이번 광화문 복원은 전란으로 인한 피해 복구도 아니고,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중건사업도 아니다. 용(龍) 그림의 마지막에 눈(睛)을 그려넣는 심정으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광화문 현판을 남겨주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내 생각은...] 광화문 현판, 글씨까지 바꿀 이유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1.01.01 00:19 / 수정 2011.01.01 10:13



전정우

서예가·심은미술관장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 맞춰 복원된 광화문 글씨를 보고는 너무 놀랐었다. 그 현판이 앞으로 수백 년 이상 그곳에 걸려 있을 것을 생각하니 서예가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못 돼 금이 가고 찢어져 현판목을 새롭게 구해 건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참에 잘됐다는 안도의 마음도 든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재임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여초 김응현 선생의 병석을 찾아가 “어서 쾌차하셔서 광화문 글씨를 쓰셔야지요”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인 여초 선생이 광화문 글씨를 쓰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을 여러 차례 공식에서 밝

힌 적이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866년 고종 중건 당시 영건도감(營建都監) 제조(提調)인 무관 임태영 훈련대장의 희미한 글씨를 디지털로 복원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중건 당시 광화문 현판은 임 대장이 붓글씨로 쓴 것을 가지고 각인한 현판글씨였다. 하지만 현재 복원돼 걸려 있는 글씨는 붓글씨가 아니라는 점이다. 서예가나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글씨를 보면 붓글씨라기보다 도안글씨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번 느낄 것이다.

중앙일보 지난해 12월 30일자 2면에 기사화된 임 대장의 원판과 복원판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다. 광(光)자의 길이와 각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화(化)자와 문(門)자에서도 각도와 획 간의 공간이 맞지 않고 답답하게 되어 있다. 광화문 세 글자의 전체도 원판은 글씨가 썩썩하고 시원하면서도 기개가 살아 있는 느낌을 준다. 반면 복원된 글씨는 컴퓨터로 재생해 확대하다 보니 생동감은 온데간데 없고 나약하고 맥없는 도형에 불과한 글씨가 되었다.

붓글씨는 글씨의 짜임새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정신이 깃든 생동감과 힘차고 강건한 필치, 그리고 유려하면서도 맑은 기운이 감도는 청초함을 으뜸으로 삼는다. 복원된 글씨는 어느 것 하나 부실하다.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길거리의 간판들을 보며 살아 숨쉬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은 모필(붓)의 위대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AD

우리나라에는 광화문 글씨를 쓸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이제 원로와 중진작가들은 광화문 글씨 얘기만 나오면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 천년만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대한민국 간판 건물의 명패가 이 모양인데도 서예가들은 모두 입 다물고 왜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는 말을 해야 할 때다.

이 시대에 진정 글씨를 쓸 사람이 없다면 방법은 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통틀어 제1인자로 추앙 받고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지 않은가. 선생의 글씨에는 ‘광’자도

‘화’자도 ‘문’자도 참으로 많다. 이 글씨를 집자해 쓰면 어떻겠는가.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개인 한 사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단의 문제로 보고 답답한 심정을 전 국민과 서예가, 그리고 관계되는 모든 분께 충심으로 말씀드리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

전정우 서예가·심은미술관장

충북일보 2010.11.15. 시론

‘광화문’ 현판을 다시 만들자

성낙수(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외솔회 회장)

‘광화문’은 우리의 얼굴이자, 역사다. 고려를 쓰러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수도를 한성으로 옮기기로 하고, 1395년 풍수지리에 밝았던 정도전의 주장으로 북악산 밑에 주궁인 경복궁을 세웠는데, 그 궁궐 정문의 이름을 ‘사정문’이라고 했다가, 세종 때 집현전에서 ‘광화문’이라고 바꾸었다고 한다. 그런데 풍수지리가 맞는 탓일까? 불에 약할 것이라는 예측과 같이 여러 번의 화재를 겪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것이 1864년 흥선대원군의 재건으로 옛 모습을 되찾았으며, 국권을 잃어버린 후 1927년 조선총독부가 경복궁 동문인 건춘문 북쪽으로 이전시켰는데, 6·25 전쟁 때 타버려서, 1969년에 다시 복원시켰다. 그 때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휘호로 현판을 만들어 40여 년 간 걸쳐 있었다. 조선총독부 건물이 헐린 후 2006년부터 광화문 복원과 이전 공사가 시작되어, 3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걸쳐 완성하였으며, 현판은 1867년에 공사감독관이자 훈련대장인 임태영의 쓴 것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달았다. 이 현판이 몇 달도 안 되어 여러 곳에 금이 가 버렸다고 한다.

지금 세종로 네거리에서 북악산쪽을 바라다 보면, 왜 ‘광화문’이 우리의 얼굴인지를 알 수 있다. ‘광화문’ 뒤로는 북악산에 큰 용이 한 마리 웅크리고 앉아 서울을 내려다 보는데, 그 왕방울 같은 두 눈과 코, 입이 장엄하다. 그 밑에 경복궁이 자리를 잡았는데, 앞에는 이순신장군이 장검을 짚고 서 있으며, 그 뒤에는 세종대왕이 떡하니 의자에 앉아 계신다. 어느 풍수지리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국권을 빼앗았던 일본은 지금도 광화문 왼쪽에 대사관을 세워놓고, 광화문을 흘깃거리지만, 한국의 중요 기관들이 거의 다 그 곳에 몰려 있으니, 못된 욕심을 내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자리한 ‘광화문’이 왜 ‘門化光’이냐고 항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우리의 글자가 있는데 어떻게 한자를 쓰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표기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인데, 왜 그 반대인 중국식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진짜 글씨가 아니고, 왜 가짜를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흑자는 한자로 써야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할지 모르나, 이미 육백 년 간 써온 이름은 원래 의미와는 관계 없이 불리는 것이니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중국식으로 썼으니, 오히려 그 뜻은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모사품은 예술로서도 가치가 없는 것인데, 설혹 디지털로 복원했다고 해도 진짜가 될 수 없으니, 조금 모자란다 해도 진짜 글씨를 거는 것이 옳다.

이미 우리는 문화재 보호에 관한 한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미 2년 전에 그 위용을 자랑하던 ‘승례문’이 한 미친 이에 의하여 속수무책으로 불타 버렸으며, 나라의 도장인 국새를 만든답시고 거금을 들였는데, 가짜 장인이 가짜 도장을 만들고, 거기다 여기저기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니 어이가 없다. 그리고 수많은 문화재들이 외국인들에 의하여 해외에 가있는데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에 또다시 광화문 현판이 졸렬하게 만들어져 걸린 지 몇 달이 안 되어 금이 갔으니,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다. 만든 이들은 나무 탔을 하거나, 시간 탔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옛날에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에는 딱딱한 나무를 선택하여, 판자로 잘라서 소금물에 넣어 삶아 그늘에서 말려서, 옷칠을 하는 등 온갖 정성을 들였으니, 오늘날까지도 멀쩡하게 잘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하는 것을 금강송이라고 베어다가, 졸속으로 말려 붙여서 글자를 새겨 걸었으니, 탈이 아니 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외국인들이 세종로에 와서 광화문을 보고 물을 것이다. “저 글자는 한국 글자입니까?, 저 현판은 왜 금이 갔습니까?” 이럴 때 무엇이냐고 답변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고유의 글자가 없어 한자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무가 없고, 기술이 없어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야 하나? 아니 그것보다도 후세에 자손들이 뭐라고 할지가 더 궁금하다. “왜 21세기 초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식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명필이 없어서 서툰 디지털로 복원했을까? 기술이 얼마나 없었으면 저렇게 금이 갔을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복원하자. 현대의 명필을 모셔다가 써달라고 하든지, 세종 시절에 나온 활자로 찍든지, 그 때 나온 책들에서 집자를 하든지 해서, 정말 우리말로 된, 우리 글자로 써진 현판을 달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외국인들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광화문’ 현판을 다시 만들어 달자.

광화문 현판을 다시 생각하며

임종건

2011년 01월 25일 (화)

서울시가 새해 들어 문화적 가치가 빛나는 사업계획을 내놨습니다. ‘한글 마루지’ 사업입니다. ‘마루지’가 영어의 랜드마크에 들어맞는 우리말이라고 하니 그런 낯선 우리말을 찾아내 사업제목으로 단 것부터가 가상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화문에서 세종로 4거리에 이르는 주변 지역 47만㎡ (14만 2,000평)를 한글마루지로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세종로공원 8,868㎡ (2,680평)에 들어서는 한글 11,172마당 외에 세종생가복원, 주시경 기념공원, 한글사랑방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11,172는 한글 자모 24자로 만들 수 있는 글자의 수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으로 하여금 돌판에 글자를 새기게 한 다음 그 돌판을 마당에 깎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관광객에게 한글 이름을 써서 표구(表具)해 주기, 한글디자인을 살리는 도로시설·표지판 등의 공공디자인 및 픽토그램 공모전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세종의 동상이 세워졌고, 광장 지하에 한글전시관이 들어선 것과 함께 매우 뜻 깊고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없는 외래어 사용과 인터넷 사용자들로 인해 한글의 상처가 깊어가고 있는 때라 서울시의 한글 마루지 사업은 서울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광화문의 현판을 다시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광화문을 복원하면서 손수 ‘광화문’이라고 한글 현판을 쓴 것에 대해 미흡한 정권의 정통성을 호도하려는 민족주의적 몸짓이라는 평화가 있지만 당시 한글전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치열한 사회적인 논란을 상기할 때 나름대로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은 1990년 1차 경복궁 복원계획이 세워질 때 왜곡된 위치와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철거 복원이 결정됐는데 1차계획의 마지막 사업으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해체 및 복원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장은 “광화문의 현판에서 박정희의 살기를 느낀다”는 요지의 말을 했던 유홍준씨였습니다. 학창시절 반정부 운동 경력의 소유자로서 충분히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체는 대체로 가늘어서 예리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살기’를 느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의미 부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박정희의 한글 현판을 떼어내고 한자 현판으로 바꿔달기로 한 것이 문화나

역사의 관정보다 정치의 관점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게 된 배경입니다.

유씨는 최근 어느 일간신문에의 기고를 통해 박정희의 한글 현판이 ‘문화능력의 반영’이라면서 광화문이 복원(復元)이 아니라 중건(重建)이었다면 한글 현판을 유지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재 당국은 옛 사진에서 한자 현판을 찾아냈으나 쓴 사람이 대원군 시절 궁궐의 공사감독관인 임태영으로 직급이 낮고 서체가 웅졸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임금 중에서 명필로 인정되는 정조임금의 글씨로 집자(集字)한 ‘門化光’ 현판을 만들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자 현판이 원형복원이냐는 반론이 제기되자 사진 속의 글자를 디지털 방식으로 모양을 내서 만든 것이 현재 걸려있는 ‘門化光’ 현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광화문’ 현판은 한자 현판과 운필(運筆)의 방향이 정반대인 것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한 한글 서법(書法)에 따른 것입니다. 박대통령은 아마도 경복궁이 세종대왕께서 궁 안의 집현전에서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창제한 조선 왕조의 정궁(正宮)이고, 정궁의 정문에 한글 현판을 거는 것의 상징성을 누구보다 깊이 생각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복원의 대원칙은 원형 복원입니다. 그러나 광화문의 한글 현판도 엄연히 국민 모두가 반세기 가까이 공유했던 우리의 현대사의 일부분입니다. 그 속에 담긴 시대정신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단순한 과거의 복원 차원을 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복원이 아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유별나게 자주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가 이 점을 외면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학계나 한글 단체들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복원공사 기간 내내 말이 없다가 한자 현판이 걸리기 코앞에 와서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시늉만 했습니다. 버스 지난 뒤에 손드는 꼴이었습니다.

나는 서울시의 ‘한글 마루지’사업이 광화문의 한글 현판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제대로 불러 일으켜, 민족 정체성의 정수(精髓)인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청회도 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한글 현판이냐, 한자 현판이냐를 가리고, 한글이면 박정희 현판을 다시 달 것인지 아니면 당대의 서예가에게 위촉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훈민정음 자체(字體)를 집자하자는 안이나, 아예 광화문의 우리말 뜻을 살려 ‘빛 될 문’으로 하자는 안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새로 내건 ‘門化光’ 현판이 제작한 지 석 달도 안 돼 균열이 가서 다시 제작 중이었는데, 나는 그것이 광화문 앞에 앉아 계신 세종대왕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벌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화문 현판

고영희 2010년 08월 18일 (수)

광복 65주년을 맞이하여 광화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현판 글씨를 한글로 하느냐 한자로 하느냐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문화재청은 고종 때 공사감독관이었던 임태영의 글씨를 달기로 하는 바람에 끝내 한자로 된 현판이 달렸습니다. 비록 현판이 달린 뒤긴 하지만 건축 측면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은 1395년(태조 4년)에 경복궁의 정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사정문(四正門)이었으나 1425년(세종 7년)에 광화문(光化門)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광화는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라는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처음의 광화문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고, 한참 세월이 흐른 1865년(고종 2년)에 복원됐습니다. 그 뒤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총독부 청사에 밀려, 광화문은 중심축이 틀어지고 자리도 옮겨져 원래 모습이 왜곡된 채 있었습니다. 일제 때 세워진 광화문은 6·25동란 때 다락이 불타 없어졌죠. 우리 역사의 굴곡만큼이나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아래 석축은 그대로 두고 윗부분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때 박 대통령이 쓴 한글 현판이 달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광화문은 위치와 각도가 달라진 채 있었던 것이지요. 그 광화문을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으로 고종 때의 것으로 복원하기로 하였고, 올해 광복절에 작업을 마무리하여 일반에 공개한 것이라 합니다.

복원이란 문화재를 원래의 위치나 상태 또는 모습대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구한다고 하여 완전하게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옛 상태에 가깝게 만들긴 하지만 꼭 그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처음 건립된 뒤, 광화문은 고종 때, 일제 강점기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모두 세 차례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종 때의 것을 본으로 삼아 있던 건물을 헐고 4번째 다시 세운 것이죠. 이번에 공개한 광화문은, 옛날 건물을 되살린다는 뜻에서 복원이란 말을 쓸지 모르지만 2010년에 짓는 새 건물입니다.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은 건축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865년 지어진 건물을 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옛 모습을 그대로 지녔다 하더라도 건축연도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건축역사에는 2010년에 지은 새 건물인데 단지 1865년의 모습을 지녔다고 기록되는 것이지요.

건축도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는 시절의 상황을 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복원한다고 하여 1865년 시대의 것으로 재현할 수 없지요. 온갖 건축재료는 이 시대의 재료를 씁니다. 강원도 금강송이라도 이 시대의 재료이고, 이 시대의 장비(전기톱, 운송차, 기중기들)를 사용하여 자르고, 옮기고, 가공하고, 설치합니다. 복원한다고 해도

1865년에 지은 건물을 다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새로 지은 광화문은 현대 건축물입니다. 단지 고종 때 모습을 지녔을 뿐이죠.

이번 복원사업을 지휘한 신응수 대목장은 황룡사 9층탑도 다시 세우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는데요. 이 시대에 그 탑을 다시 세워도 신라 시대의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건축물인 만큼 이 시대의 상황을 담는 게 옳습니다. 이 시대 우리 글자는 한글입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은 2000년대에 지은 건물에 1800년대 글씨로 된 현판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 어떤 시대상황이었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습니다. 현대 재료, 현대 장비, 현대 공법을 써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의 이름표를 1865년식으로 붙인다면 현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 한글로, 이 시대 명필가가 쓴 글자로 된 현판을 다는 게 솔직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건축 관점 말고도 한글단체가 주장하는 이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역사에 남은 건축물에 우리 글자로 이름표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세종로는 역사의 거리이고, 그곳에 세워지는 광화문이기에 더욱더 현판을 한글로 다는 게 좋겠습니다.